

이흥재의 세상만사



술을 좋아하는 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한 잔 막세그려 또 한 잔 막세그려’로 시작되는 ‘장진주사’(將進酒辭), 조선 중기에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지은 사설시조(辭說詩調)다.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니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술을 무진장 먹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데 이 조선시대 최고의 권주가(勸酒歌)를 학창 시절에 처음 접했을 때, 한 가지 의문을 피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는 원숭이가 왜 이 노래에 등장했을까 하는 것이다.

“이 몸 죽고 나면 소소리 바람 불 때 뉘 한 잔 먹자 할꼬. 허물며 잔나비 휘파람 불 제 뉘우친들 있더리” 무덤가에 매아리치는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는 “왜 좀 더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오지 않고 벌써 이렇게 와서 누웠느냐?”고 묻는 듯하다.

하지만 예로부터 ‘동국무원’(東國無猿)이라 해

서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살지 않았다. 다만 조선 초기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선물용으로 들어온 듯하다는 가설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송강은 이 시에 절묘하게도 원숭이를 끌어들었다. 두주불사(酒酒不辭)의 풍류 가객(歌客)이었던 송강은 무덤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를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에 비유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송강 자신이 원숭이해(1536년)에 태어난 것과 혹시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학창 시절 풀었던 의문은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조삼모사와 원후취월

이미 소개한 ‘장진주사’에도 나오는 바, 원숭이의 다른 이름은 ‘잔나비’다. 여기에서 ‘나비’는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원숭이의 옛말(‘남’)이며, ‘잔’은 ‘잔걸음’처럼 빠르다는 뜻을 가진 ‘재’에서 온 말이다. 동작이 빠른 원숭이라는 뜻의 ‘잔나비’가 ‘잔나비’로 변한 것이다.

한데 재미있는 것은 ‘원숭이’는 순우리말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한자말인 ‘원성’(猿猩)에 ‘바둑이’의 ‘이’처럼 접사가 붙었는데 원(猿)과 성(猩)은 모두 잔나비를 뜻한다. 원래 ‘원성’에서 ‘원

관을 씌워 준들 원숭이가 사람 될까

이’로 음운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병신년(丙申年)은 원숭이해다. 옛그제 설을 쇠고 났으니 육십 간지 중 서른세 번째인 원숭이해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셈이다. 원숭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자성어는 장자(莊子)에 나오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중국 송나라의 저공(俎公)이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이야기다. 당장 눈앞의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흔히 쓰는 말이다.

‘미아리 눈물 고개/ 입이 떠난 이별 고개’로 시작되는 노래의 제목에 나오는 ‘단장’(斷腸)이란 말도 원숭이와 관련이 있다. 새끼를 잡아간 병사를 백여 리 남게 따라간 어미 원숭이가 혼절하자 그 배를 갈라 보니 창자가 녹아내려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얘기가.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오는 단장어(斷腸之哀)의 고사(故事)다.

중국에서는 붉은 원숭이띠 해에 지혜로운 아이가 태어난다는 속설이 있다. 원숭이띠는 재주가 많다고 한다. 인류 역사상 최고 천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원숭이해(1452년)에 태어났다. 원숭이를 닮아 못생겼던 도요토미 히데

요시의 경우, 태어난 해(1536년)는 물론 월·일·시 모두가 병신(丙申)이었다고 한다.

원숭이는 지혜와 장수(長壽)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편 어리석은 동물로 자주 묘사되기도 한다. ‘조삼모사’의 고사가 그렇고 ‘원숭이에게 옷을 입히는 격’이란 속담 또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사연이 있다.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항우(項羽)는 힘이 장사인 무장이었다. 그의 책사 한생(韓生)은 함양에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될 것을 항우에게 간언했다. 하지만 금의환향(錦衣還鄉)할 욕심에 항우는 자신의 고향인 초(楚)의 팽성으로 천도(遷都)를 고집했다.

표 주고 뺏 맞는 일 없도록

이에 한생은 “원숭이를 목욕시켜 관을 씌운 꼴이군”이라고 증언거렸다. 원숭이는 관(冠)을 쓰고 옷을 입어도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에 격노한 항우는 한생을 팔뚝 끊는 가마솥에 던졌다. 한생은 죽으면서 “한왕(漢王·유방)이 그대를 말하리라”고 예언했는데 나중에 그대로 됐다.

마지막으로 불교 경전에 나오는 원숭이 이야기 하나. 옛날 인도의 한 숲 속에서 연못에 빠진 달을

건져내지 않으면 세상이 암흑 속에 묻힐 것이라고 생각한 원숭이 무리의 대장이 있었다. 그래서 대장은 먼저 나뭇가지에 매달린 뒤 나머지 500마리가 순서대로 앞선 놈의 꼬리를 잡고 매달리면 맨 아랫 놈이 달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이 많은 원숭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모두 연못 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원후취월(猿取月) 혹은 정중로월(井中撈月)의 우화(寓話)다.

이는 물론 허상(虛像)에 집착하지 말라는 불가(佛家)의 가르침이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더욱 와 닿는 것은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저 원숭이들의 대장처럼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이 또다시 선량입내 하고 행세를 하게 되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민생은 더욱 썩진(芝翫)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조삼모사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선거 때만 잠시 머리를 조아리는 저들에게 ‘표 주고 뺏 맞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원숭이인 줄도 모르고 저들에게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 준 뒤 뒤늦게 ‘한 잔 막세그려’ 하며 술로 시름을 달래 봐야 그 무슨 소용일 것인가. <주필>



물품 챙겨 南으로 1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입구가 개성공단에서 나서는 차량 등으로 북측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

“군사통제구역 선포... 설비·물자 등 자산 전면동결”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북한이 11일 개성공단을 군사통제 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11일 10시(우리 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이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 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관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면서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은 이날 전원 출근하지 않았다.

한미일 대북제재 ‘선공’... 中·안보리 압박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3국이 대북제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리 정부를 시작으로 일본, 미국이 거의 동시에 양자제재에 시동을 걸면서 대북제재 ‘선공(先攻)’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흘만인 9일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로 평가받아온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 북한 노동자 임금이 연 1억달러 이상이 지급되는 ‘돈줄’을 차단,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

성명은 우리측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대해서는 “도발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괴뢰들이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대한 핵무기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꾀변”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결 악녀’, ‘머저리’, ‘열간방동이’ 등등 막말을 동원해 비난했다. /연합뉴스



독도 땅 민간단체 첫 임대

서도 옛 문어건조장 1㎡

독도 땅을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빌려 기념석을 설치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말 최종 덕기기념사업회가 신청한 독도 첫 주민인 고 최중덕씨 기념석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했다. 임대하는 땅은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0 서도(사진)의 옛 문어 건조장 임대 1㎡로 기간은 1월 29일부터 2019년 1월28일까지 3년이다. 사용료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 1년에 90원이다.

최중덕씨는 1963년 독도에 들어가 토담 집을 짓고 살며 23년간 독도사람을 실천했다. 기념사업회는 최씨를 기리기 위해 6월 까지 길이 60cm, 너비 50cm, 높이 18cm 기념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념석에는 ‘영원한 독도 주민 최중덕, 독도 거주 1963~1987년’이라는 글귀를 새긴다. 포항수산청 관계자는 “독도 땅을 민간단체가 임대 한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경주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여</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빌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천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한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윤택하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면접준비실전과정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사·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감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주송하여 드립니다.